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반갑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

KIA, 오늘 제주 오라구장에서 넥센과 격돌

어제 연습경기서 차일목 투런포 4-3 역전승

KIA 타이거즈가 27년만에 제주도 나들이에 나섰다.

KIA 타이거즈가 11일 제주도 오라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와의 연습경기를 가졌다. 12일에는 넥센과 같은 장소에서 프로야구 2011시즌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KIA에게는 1984년 9월22·23일 당시 OB 베어스전 이후 27년만의 제주도 경기. 제주도 시범경기는 지난 2000년에 시작되어 2001년, 2005~2008년에 개최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08년 SK와 두산의 경기가 있었다.

이번 넥센과의 경기는 당초 목동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프로야구 저변 확대와 제주지역 야구팬들을 위해 제주도로 장소가 변경됐다. 경기는 12·13일 오후 1시 MBC SPORTS+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연습경기는 4-3 KIA의 승리로 끝났다. 앞서 SK와의 연습경기에서 홍재호의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으로 타선 점화에 나선 KIA 타자들은 이날 14개의 안타를 터트리며 몸을 풀었다.

선취점은 넥센이 가져갔다. KIA 선발 박경태가 1사 1루에서 넥센의 새 용병 알드리지에게 2루타를 맏으며 1실점했다.

0-1로 뒤지던 4회 승부를 뒤집는 차일목의 투런포가 나왔다. 김주형의 안타로 만들어진 2사1루에서 차일목이 넥센의 두 번째 투수 김영민의 직구를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기며 2-1로 승부를 뒤집었다.

7회에는 KIA의 '신종엔진' 윤정우와 신종길이 점수를 합작했다.

윤정우가 우전안타로 출루한 이종범의 대주자로 들어가 도루에 성공했다. 이어 신종길의 적시타때 홈을 밟으며 득점을 기록했다. 타점을 올린 신종길도 도루에 이어 김상현의 좌전안타때 홈에 들어오며 득점도 추가했다.

KIA는 4-2로 앞선 8회말 넥센 고종욱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지만 추가 실점없이 4-3으로 승리를 거뒀다.

스프링캠프 이후 4차례의 연습경기에서 4연승을 달린 KIA는 12일부터 시범경기에 돌입해 본격적인 베스트 11 가리기에 나선다.

/제주=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표정도 똑같다 러시아의 유리아 콜튜노바와 다리아 고포르가 11일 이탈리아의 토리노에서 열린 유럽 다이빙 챔피언십에서 여자부 10m 싱크로 플랫폼 결선에 멋진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정준하, 넥센 입단?

이숭용 대신 야구선수 변신 '무한도전'… 웃음 선물

개그맨 정준하가 KIA와의 연습경기에서 넥센 선수로 깜짝 등장했다.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멤버인 정준하가 11일 넥센 이숭용과 하루 동안 삶을 바꿔사는 '타인의 삶'편 출연을 위해 야구 선수로 변신했다.

이숭용의 배번인 10번을 달고 나온 정준하는 이날 넥센 선수단과 하루 일과를 똑같이 소화하며 야구선수 정준하로의 변신에 도전했다. 실제로 정준하는 연예인 야구단 한(恨)소속으로 활동하는 등 야구에 관심이 많다.

경기에 앞서 정준하는 넥센 선수들과 워밍업은 물론 캐치볼과 배팅·수비 훈련 등도 함께 했다. 덕아웃에서 왕고참 이숭용의 역할도 대신 수행했다.

정준하의 도전은 상대팀 KIA 선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다. 정준하의 훈련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본 KIA 선수들은 정준하의 실수 연발에 웃음보를 터트리기도 했다. 하지만 "소질이 있다. 괜찮은 실력이다"며 야구 선수 정준하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배팅훈련을 지켜보던 조범현 감독도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로 타격에는 재능을 보였다. 정준하의 험난했던 야구 도전기는 오는 26일 방영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해외파 석현준·김귀현 홍명보호 승선

네덜란드 프로축구 아약스에서 뛰는 공격수 석현준(20)과 아르헨티나 1부 리그 벨레스 사르스필드에 입단한 김귀현(20)이 홍명보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의 호출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11일 올림픽(U-23) 대표팀에 부를 해외파 선수 6명의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 구단에 소집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팀은 27일 오후 3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중국과 '하나은행 초청 올림픽팀 친선경기'를 벌인다.

홍 감독은 이번에 소집하는 해외파를 선정할 때 조광래 감독이 지휘하는 A대표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썼다.

A대표팀은 25일 온두라스, 29일 몬테네그로와 평가전을 치르는 데 이미 해외파 10명의 소속 구단에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홍 감독은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때 8강 진출을 합작했던 일본 J리거 조영철(22·니가타)과 김보경(22·세레소 오사카), 김영권(21·오미야)을 호출하고 싶었지만 조 감독이 먼저 점찍는 바람에 뜻을 접었다.

대신 석현준과 김귀현이 소집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석현준은 지난해 5월 홍 감독의 호출을 받고 U-20 대표팀에 합류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U-20 국제 친선대회에 참가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1부 리그 벨레스와 3년 계약한 수비형 미드필더 김귀현은 170㎝로 그리 큰 키는 아니지만 수비력이 좋고 공중볼 다툼에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석현준과 김귀현 외에 프랑스 프로축구 2부리그에서 뛰는 청소년 대표 출신의 공격수 이용재(20·낭트)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공격수 최정한(22·오이타), 미드필더 정우영(22·교토상가), J2리그의 수비수 정동호(22·돗토리)도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日프로야구 시범경기 강진 영향 중단 사태

11일 오후 2시46분께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 영향으로 일본 곳곳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도쿄와 미야기현 센다이시 등에서는 지진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열릴 예정인 시범경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쿄는 임창용(35·야쿠르트 스왈로스)의 홈구장이 있는 곳이고 센다이시는 김병현(32)이 뛸 라쿠텐 골든이글스의 연고지다.

이날 열린 시범경기 4경기 중 2경기는 지진이 발생한 직후 중간에 취소됐고, 2경기만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효고현에 있지만 아카시 구장에서는 라쿠텐과의 경기를 치르던 김태균(29·지바 롯데)은 8회에 짐을 쌌다. 라쿠텐 선수들이 피해가 발생한 센다이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해 양팀의 합의 하에 경기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토종골잡이' 박기동-최성국 '격돌'

광주 FC, 오늘 수원서 삼성 전

"관록의 최성국(28·수원)이냐, 패기의 박기동(23·광주)이냐."

축구 팬들의 시선이 12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수원 삼성과 '신생팀' 광주 FC의 정규리그 2라운드 경기에 쏠리고 있다.

'조광래호' 승선이 확실한 신예 스트라이커 박기동과 '리틀 마라도나'라는 별명으로 청소년대표를 거쳐 A대표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최성국이 나란히 소속팀의 2연승을 향한 골 경쟁에 나선다.

지난주 개막한 K리그 최고의 화두는 수원이 '라이벌' 서울을 개막전에서 격파한 것과 대표팀 스트라이커 물망에 오른 박기동의 멀티골 소식이었다.

수원은 지난 6일 개막전에서 서울과 원정을 펼치는 악조건 속에서 2-0으로 완승하며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올해 수원 유니폼을 입으면서 주장을 맡은 최성국은 1-0으로 이기던 후반 15분 날카로운 크로스로 오장은의 추가골을 도우면서 이적 이후 첫 공격포인트를 달성해 무난한 신고식을 마쳤다.

이에 앞서 박기동은 지난 5일 대구FC와의 개막전에서 선제골과 결승골을 작렬해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해 일본 J리그 2부팀인 FC기후에서 실패를 맛보고 돌아온 박기동은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2골을 터트려 오는 25일과 29일 예정된 두 차례 A매치를 앞두고 대표팀 승선이 유력해졌다.

이런 가운데 개막전에서 화끈한 승리를 맛본 수원과 광주가 2라운드에서 맞붙으면서 최성국과 박기동의 골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수원으로 이적해 주장을 맡은 최성국은 개막전에서 도움을 기록했지만 스트라이커의 본분인 골 넣는 것이 시급하다. 수원도 최성국의 골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05년부터 6년 동안 홈 개막전에서 첫 골의 주인공이 모두 외국인 선수에게 돌아갔던 만큼 올해에는 국내 공격수의 활약이 절실해서다.

최성국은 "서울과의 개막전에서 골을 넣고 싶었지만 도움만 기록했다"며 "광주와 하는 홈 개막전에선 홈 팬들 앞에서 첫 골을 넣고 싶다. 토종 공격수의 자존심을 살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박기동 역시 골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 전지훈련 때 다친 발목이 아직 완전치 않아서 개막전에서 풀타임을 뛰지 못했던 박기동은 발에 쥐가 나면서 페널티킥 기회를 김동섭에게 넘겨줘 해트트릭의 기회를 놓친 게 아쉽기만 하다. /연합뉴스

최성국

박기동

생활 게시판

화촉

▲최중남·임수영씨 차남 용선군 연규석·권정임씨 장녀 혜경양=12일(토) 오후 1시 수원노블레스 웨딩컨벤션 6층(아모리스홀)

▲이상열·박효숙씨 장남 병률군 이한성(송원고 교사)·최수복씨 장녀 슬기양=12일(토) 오전 11시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정학수(삼도초교 교장)·윤남효씨 장남 석훈군 정광준·조보금씨 장녀 지영양=12일(토) 낮 12시 4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현성권(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무국장)·정해자씨 차남 대용(전남대 병원 의사)군 정해석(KT 상무지점 팀장)·김정자씨 장녀 수영(광주 삼육중학교사)양=13일(일) 오후 1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이영자 님(여/70세)
子/子婦 : 전홍성 / 류현희
孫 : 전원희, 하현, 석현
夫 : 전용수
• 호실 특201호 • 발인: 3월 13일
• 장지:순창금과 선영 • 직통: 227-4381

故 고경상 님(남/69세)
子/子婦 : 고병욱 / 이영미, 병우 / 신진하
女/壻 : 고은희 / 박용수, 영인 / 이무록
• 호실401호 • 발인: 3월 12일
• 장지:화순선영 • 직통: 227-4383

故 임병순 님(여/91세)
子/子婦 : 이석기 / 이홍점, 평기 / 심춘남
영기 / 이점남, 관기 / 송미선
孫 : 이종호, 종성, 종식, 승훈
재상, 주연, 영아, 진숙
• 호실 특301호 • 발인: 3월 13일
• 장지:담양대덕 선영 • 직통: 227-4382

마음까지 편안한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人 남재경 님(남)
父:남운길 弟:남재영 妹:남은미
• 발인 : 3월 12일 7시40분 •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50-4403

故人 김금례 님(여/85세)
子/子婦:서대현/김 현 女/壻:서옥남/장용환, 승희/이채운, 정아/정종범, 영순/주영기, 남순/오병원, 수경/송경태
• 발인 : 3월 12일 00시00분 • 장지 :
• 연락처 : 250-4413

故人 안점례 님(여/92세)
子/子婦:백승평/김순덕, 수현/이명화, 길현/조달순, 태현/박월단, 심현/김현숙 女:백신자, 인례, 삼녀
손자:선웅, 선균, 창선, 선우, 승룡, 홍선, 기동
• 발인 : 3월 12일 9시00분 •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50-4409

故人 김승철 님(남/76세)
未亡人:장금옥
子/子婦:김낙형/김영희, 현조/김복환 女/壻:김선희
• 발인 : 3월 12일 08시00분 • 장지 : 영락공원
• 연락처 : 250-4407

故人 조외순 님(여/91세)
子/子婦:배석철/윤정옥
女/壻:배현순/권동희, 현숙/김성수
손자:배정민 손녀:배수진, 선, 해옥
• 발인 : 3월 12일 9시00분 • 장지 : 곡성 목사동 평리
• 연락처 : 250-4410

故人 조복순 님(여/100세)
子/子婦:정종택/황정숙, 수택/이민자
女/壻:정갑택/이병용, 진희/이청수, 현희/노주식, 도택/강병태, 필택/유재중
• 발인 : 3월 13일 9시00분 • 장지 : 곡성 겸면 선영
• 연락처 : 250-4406

故人 정영률 님(남/84세)
子/子婦:정창식/안옥란, 창석, 창남
女/壻:정명단/윤금철, 용단/황석순, 안단/박채호, 창단/남덕진, 해단
• 발인 : 3월 13일 12시00분 • 장지 : 완도 약산면 선영 • 연락처 : 250-4410

그린장례식장 24시간 대기 (062)250-4455